

클래식 명곡 산책 - 16 - 7·8·9중주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체코 구중주단 / 출처 : youtube.com



음악 듣기
(bitly.kr/rLZvG)

이번 달에는 일곱 개부터 아홉 개까지 여러 악기가 등장하는 칠중주와 팔중주, 구중주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난달에 말씀드린 육중주처럼 대결 구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관악기와 현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로 슈베르트의 <팔중주>는 교향곡을 쓰려다가 바꾼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프란스 베르발드 (1796~1868) : 칠중주 (1818)

Franz Berwald : Septet in B♭ major

독일의 베어발트 집안은 17세기부터 독일과 스웨덴, 러시아에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를 많이 배출했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프란스 베르발드도 집안 내력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죠. 프란스는 10대 초부터 궁정 관현악단과 오페라단, 로열 채플 등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으며, 북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폭넓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작곡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오페라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베를린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35년에 정형외과를 개업한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의학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어 효과적인 치료 도구를 발명했죠. 이 도구들은 베르발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십 년간 베를린에서 사용될 정도로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다 6년 후 병원을 매각하고 빈과 스톡홀름을 오가며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인

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웨덴에서는 혹평이 많았죠. 그래서 고국에서 대학이나 관현악단 지휘자 등의 안정적인 자리를 얻지 못해 평생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정형외과 의사로, 그리고 친구의 주선으로 물레방아와 유리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1866년에 작곡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스웨덴 극성훈장을 받고, 이듬해 스톡홀름 음악원의 작곡 교수로 지명되었지만, 아쉽게도 이후 그에게 남은 삶은 이러한 명성을 충분히 누릴 만큼 길지 못했습니다.

베르발드의 <칠중주>는 궁정 관현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인 1818년 1월 10일에 초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보다 10년 후인 1828년에 작곡되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것은 1828년 12월 6일에 '새로운 7중주곡'이 초연되었다는 기록 때문이었죠. 이 '새로운 7중주곡'은 1818년 초연된 곡의 개정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829년에 베를린으로 떠난 후 누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웨덴에 있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칠중주>와 <세레나데> 이외에는 어떤 곡도 연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을 보면, 베르발드는 스스로 이 곡을 자신을 대표할만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매혹적인 화음, 잘 짜인 텍스처 등 매우 매력적인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곧잘 연주되고 있습니다.

편성은 클라리넷, 바순, 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베토벤(1770~1827)의 <칠중주>(1799)와 동일한데요, 음조는 6년 후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팔중주>(앞의 편성에서 바이올린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1악장은 느린 서주 후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2악장의 특정 부분을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화음 진행을 배경으로 간단한 클라리넷 주제가 등장합니다. 2악장은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두 악장이 붙어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느린 부분은 슈포어와 후멜 등 당대 거장에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비되는 빠르고 활력이 넘치는 빠른 부분이 이어진 후 느린 부분이 재현되는 후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3악장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유명한 운명의 주제가 들리며, '콘 스피리토'라는 지시어처럼 열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 팔중주 (1824)

Franz Schubert : Octet in F major, D803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1824)는 현악사중주로서 40분에 이르는 장대한 길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송어>와 같이 슈베르트의 동명 가곡을 주제로 한 만큼 더욱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같은 해에 작곡된 <팔중주>는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소녀>를 능가하는 한 시간 정도의 장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소녀>와 같이 비장미를 갖기보다는 가볍고 밝은 분위기로 휴식과 같이 편안한 작품이죠. 그런데 <팔중주>는 클라리넷과 바순, 혼,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칠중주>에 바이올린 하나를 더한 것으로, 이 곡을 위촉한 클라리넷 연주자 페르디난트 트



프란스 베르발드 / 출처 : wikipedia.org



프란츠 슈베르트 / 출처 : styriarte.com

로여(Ferdinand Troyer, 1780~1851)가 24년 전 베토벤의 <칠중주>를 초연했던 팀과 연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슈베르트는 편성뿐만 아니라 악장 수 역시 베토벤의 작품과 같은 6악장으로 맞추는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은 위촉한 의도에 맞게, 당시 베토벤의 삼중주 <대공>(1811)을 헌정 받았던 루돌프 공을 비롯하여 베토벤의 <칠중주>를 초연했던 연주자 대부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덟 악기로 연주되는 실내악이 왜 이렇게 장대한 길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 곡을 쓸 때 즈음에 슈베르트가 한 친구에게 새로운 ‘대 교향곡’을 쓰고 있다고 언급한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쓰인 악보 중에는 교향곡이라고 생각할 만한 스케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팔중주>와 함께 이 곡과 거의 동시에 쓰인 피아노 이중주 <그랑 듀오, D812>의 지나친 규모로 보아, 이 두 작품이 그 미지의 ‘대 교향곡’의 실내악 버전 혹은 초고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악기 사용 방법 역시 베토벤의 <칠중주>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관악기가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구성되어 현은 다이내믹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곡을 리드하며, 관은 차분하게 감싸 안죠. 그리고 관악기 중에서 클라리넷이 비교적 민첩하기 때문에 클라리넷 홀로 현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합니다.

이 곡에서도 <피아노 오중주 ‘송어’>나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와 같이 슈베르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1악장은 <방랑자, D649>(Der Wanderer) 주제가 사용되었으며 4악장은 징슈필 <잘라만카의 친구들, D326>(Die Freunde von Salamanka: 1815)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하지만 <방랑자>의 주제는 <송어>나 <죽음과 소녀>와 달리 눈썰미가 좋아야 알아챌 수 있도록 변형되어있으며, <잘라만카의 친구들>은 그리 유명한 곡이 아니어서 <팔중주>가 알려지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 출처 : wikipedia.org



펠릭스 멘델스존 (1809~1847) : 현악팔중주 (1825)

Felix Mendelssohn-Bartholdy : Octet in E♭ major, Op. 20

멘델스존이 <현악팔중주>를 작곡했던 때의 나이는 불과 16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1년 전에 <교향곡 1번>을 완성하고 이듬해에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을 완성하는 등 대표적인 초기 곡들이 발표되던 시기였죠. 이 곡에는 그가 구사하던 작곡 기법들이 이미 대부분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멘델스존만의 목소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감성이 깃들어 있죠.

사실 ‘현악팔중주’라는 편성은 매우 드문데요, 멘델스존이 이 곡을 쓰게 된 것은 루이 슈포어(Louis Spohr : 1784~1859)의 두 개의 사중주단을 위한 작품들로부터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멘델스존의 작품은 모든 악기가 동등한 위치에서 화음을 만들어내고 주제의 변화가 더욱 풍부하여, 슈포어의 곡보다 더욱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악기가 주제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지난 세기의 유물이 되어버린 대위법에 벌써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곡은 끊임없이 샘솟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첫 악장의 시작부터

바이올린의 밝은 멜로디를 통해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며, 두텁고 촘촘한 앙상블의 반주는 음악을 운동성이 있게 진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악장은 첼로와 비올라를 중심으로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16분음표 리듬이 맥박과 같이 고동치면서 악장 전체의 다이내믹을 움직이게 하죠. 장조로 되어있는 두 번째 주제는 보다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며, 오르내리는 스케일이 마치 용단을 짜는 듯이 교차합니다.

3악장 스케르초는 1년 후에 작곡되는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현악팔중주>의 안에는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괴테가 주인공이죠. 멘델스존은 괴테의 ‘파우스트’ 1부에 있는 ‘발푸르기스의 밤’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요, 누나인 파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곡에 대해 오른편과 같이 썼습니다.

마지막 악장은 현을 위한 축제입니다. 제2첼로로 시작한 후 곧 8성부 푸가로 확대되며, 3악장의 단편들이 4악장에 다시 등장하여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끝없이 진행될 것 같은 진행은 무궁동(無窮動)과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축포를 터뜨리며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가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공기 중으로 떠나고,
그중 반은 빛자루에 붙잡히면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흘러갔다.
마지막에는 바이올린이
갇혀서처럼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1890~1959) : 구중주 2번 (1959)

Bohuslav Martinů : Nonet No. 2, H374

보헤미아의 사골 마을인 폴리츠카에서 태어난 마르티누는 15세 때부터 폴리츠카 현악사중주단을 이끌 정도로 바이올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입학한 프라하 음악원에서 구제 불능이라고 낙인찍혀 곧 학업을 접어야만 했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고향에서 음악 교사를 하면서 작곡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한 마르티누는, 파리에서 인정을 받고 작곡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를 거쳐 1941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미국은 예술가들에게 풍요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음악을 가르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아 출신으로 외국에서 인정받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 걸작들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선배 작곡가인 드보르작(1841~1904)과 닮았죠. 심지어 말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초기의 마르티누는 재즈에 큰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공산화되어 갈 수 없는 고향이 그리워서인지 보헤미아의 민속 선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혼, 바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를 위한 <구중주 2번>은 마르티누의 마지막 작품으로, 세상을 뜨기 한 달 전에 체코 구중주단에 의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만년의 작품인 만큼 민속적인 선율이 두드러지며 신고전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 출처 : dvoraknyc.org